

2023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설날감사예배

첫 마음으로..!

가정예배를 드린 날 : 월 일
 참여한 식구들:



1.개식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설을 맞이하여 오늘까지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설날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예배의부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6:1-3) 아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날 명절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3.찬양

(통일 305)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559

가정 어포라를 경외하여 그의 재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우승에게 복이 있으리요다 (시 112:1-2) 임마누엘 가정: 10.10.10.REF. 구두회, 1967

보통으로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 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잇 고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 가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 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 라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라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 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라

후렴

고마워 라 임마누 엘 예 수만 섬가는 우리 집

고마워 라 임마누 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 루

쉬운 기타코드(capo=1st) D^b-C A^b-G E^b7-D7 G^b-F

4.대표기도 가족 중 한 명

5.성경봉독 요한계시록 2:1-5

¹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²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³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⁴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⁵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말씀 설교자(설교문은 뒷면에 있습니다.)

7.감사의 시간

- * 가훈설명 - 가장 (가정의 가훈을 설명하면서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한다)
- * 덕담(격려와 칭찬의 시간) - 다같이 (새해 소망을 나누거나, 가족 간에 사랑의 고백을 한다.)
- * 찬양 - "좋은신 하나님"
- * 축복기도 - 가장 (온 가족의 소망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축복하며 기도한다)

8.주기도문 다같이

389 좋은신 하나님

좋은신 하나님 좋은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참 좋은신 참 좋은신

첫 마음으로 (계2:1-5)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묵은 것들, 옛 것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갈 결심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족은 먼저 2023년 설날을 맞이하게 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해도 우리 자신과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채봉 작가의 첫 마음

1월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의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 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나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 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뭉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교회는 수고와 인내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지만(2-3절)
시간이 흐르면서 첫 마음,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잃어버려 책망 받았습니(4-5절).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한다는 것은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계산(비교)한다는 것은 열정 가득한 능동적 자세를 무너뜨리고 수동적인 자세를 갖게 합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양보하기 보다는 남에게 희생할 것을, 남이 양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부부관계 - 희생과 양보,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 직장생활 - 연봉 비교, 능력 비교하지 말고 타인의 실력과 경험을 인정해 주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 ②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보다 내 열심(종교적 열심)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렘2:7-8).”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유지할 수 있을까)요?

- ① 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서야 합니다(십자가를 묵상하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26:39)”
- ② 처음 주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순간, 사명을 다짐했던 그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주님 주신 첫 마음, 첫 사명을 가슴에 품고 열정으로 삶을 세워 주님 주시는 형통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